

신라 · 백제 문자문화와 일본 문자문화의 비교연구*

-출토문자자료를 중심으로-

방 국 화*

- I. 머리말
- II. 신라와 일본 문자문화의 공통점
- III. 백제와 일본 문자문화의 공통점
- IV. 백제계 · 신라계 도래인의 문자사용과 일본의 지역적 · 시대적 특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목간을 비롯한 출토문자자료를 기초자료로 신라의 문자문화, 백제의 문자문화가 일본 문자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신라와 백제의 한자문화의 특성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 것이다. 신라, 백제, 그리고 고구려의 문자문화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각기 자기 나라의 특성도 갖고 있다. 즉 한반도 고대 삼국의 한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1055801). 또한 2021년2월26일에 개최된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 사업단 제2회 국제학술대회(기간: 2021년2월25일~2월26일,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학국진홍관)의 발표원고 “일본 고대 공진물 부찰목간과 지역특성” 중 일부를 수정 · 가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 연구교수 / guohua1211@yahoo.co.jp

용법은 같다고만 볼 수 없고 각 나라에 특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본고에서는 신라, 백제의 문자자료를 일본의 문자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각 지역에 나타나는 문자문화의 차이를 문자문화의 전파측과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西海道 지역의 “厩”의 사용 상황을 同訓異表記로 되는 “甕”과 비교함으로써 “厩”은 백제계 도래인의 영향으로 일본 각지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甕”(瓮) 사용은 신라의 영향으로 보았다. 그리고 若狹國의 하찰목간의 “伊”와 같이 글자 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자문화의 전파측, 즉 신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주제어

신라, 백제, 문자문화, 목간, 출토자료

I. 머리말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도입하여 자기 나라의 언어를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실행한 한반도와 일본열도, 서로의 인적·물적 교류 속에서 문자문화도 함께 전파됨으로써 양국의 한자 사용에는 많은 공통점이 생기게 되었다. 지리적 위치가 가까웠던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고대로부터 교류가 많았으며 언어체계도 비슷한 점으로 인해 한자 사용뿐만 아니라 한문 서사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문자문화 형성·성립에 있어서 한반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 이는 근년의 출토문자자료의 증가로 인해 실증되고 있다.

출토문자자료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목간이다. 글자가 쓰여 있는 나무 조각을 널리 목간이라고 하는데 목간은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것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중 신라, 백제 목간은 발견되었으나 고구려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현재 출토된 목간은 1342매에 달해¹⁾ 수량으로서는 많지 않으나 그 내용은 풍부하여 충분히 일본 목간과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현재 약 50만매에 달하는 목간이 출토되었다. 그중 약 70%가 고대(7~8세기) 도성 및 그 주변에서 출토되었다²⁾. 일본 출토 목간의 목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대 목간은 문자자료가 결핍한 고대에 있어서 문헌자료의 진실성을 증빙하는, 또는 그 보충자료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고 있다.

출토문자자료는 재료가 목재인 목간뿐만 아니라 금속, 돌, 토기, 기와 등에 글을 쓴 것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후세 사람들의 편찬을 거치지 않은 문자자료는 당시 사람들의 문자문화를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다. 문자문화를 비교함에 있어서 이러한 편찬을 거치지 않은 1차자료를 사용해야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 2021년 6월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 사업단, 『동아시아 목간 총람[한국목간편]』의 집계에 의함. 고대목간 743매, 고려시대 이후의 목간 599매.

2) 渡辺晃宏, 「はじめに」, 奈良文化財研究所, 『木簡 古代からの便り』, 岩波書店, 2020.

특히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문자문화는 오래전부터 그 공통점이 제기 되어 왔으나 고대에 있어서는 문자자료의 결핍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는 출토문자자료의 증가로 인해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열도라는 큰 틀에서만이 아니라 신라와 일본 모 지역, 백제와 일본 모 지역과 같이 지역 차원에 있어서의 비교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한반도의 고대삼국, 즉 고구려, 신라, 백제는 서로 교류가 있어 문자문화에 공통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椋”은 중국에서는 나무 종류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으나 고구려, 신라, 백제에 있어서는 모두 창고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고 한반도의 이러한 용법이 일본으로도 전파되어 일본에서도 창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³⁾.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문자문화는 이와 같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각기 자기 나라의 특성도 갖고 있다. 중국에서도 각 지방에 따라 한자 용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한나라 시기에 편찬된『方言』(揚雄, 기원전53-기원후18)⁴⁾이란 문헌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는 方言漢字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地域漢字라고도 한다⁵⁾. 즉 지역에 따라 방언이 있는 것처럼 일정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한자 용법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보았을 때 한반도 고대 삼국의 한자 용법이 같다고만은 볼 수 없고 각 나라에 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

본고에서는 목간을 비롯한 출토문자자료를 기초자료로 신라의 문자문

3) 李成市, 「古代朝鮮の文字文化-見えてきた文字の架け橋-」, 平川南編『古代日本文字の来た道』, 大修館書店, 2005; 方國花, 「古代東アジア諸国におけるクラの用字」, 『説林』62, 愛知県立大學国文学会, 2014.

4) 揚雄(郭璞注), 『方言』, 中華書局, 2016.

5) 笹原宏之, 『方言漢字』, 角川學芸出版, 2013.

6) 馬場基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문자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현재 혼동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馬場基, 「書写技術の伝播と日本文字文化の基層」, 『日本古代木簡論』, 吉川弘文館, 2018, 290쪽), 鐘江宏之는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의 문자문화에는 제각기 특색이 있으며 일본의 문자문화는 각 지역의 특색이 교류를 통해 전해졌다고 한다(鐘江宏之, 「文字の定着と古代の社会」, 吉村武彦·吉川真司·川尻秋生編『文字とことば』, 岩波書店, 2020, 36쪽).

화, 백제의 문자문화가 일본 문자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신라와 백제의 문자문화의 특성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신라와 일본 문자문화의 공통점

신라와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교류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교류가 되었다는 사실은 고고학적인 발굴의 발전과 연구의 진전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유물은 그 유적·유구의 성격과 출토된 토층, 그리고 많은 연구 성과의 축적에 의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유물 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각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일본 토착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반입된 것도 있으며 일본에 건너간 渡來人에 의해 일본에서 작성된 것도 있다. 일본에서 출토된 이러한 유물이 한반도 계통의 경우, 한반도의 어느 시대의, 또는 어느 지역의 영향인지를 밝히는 상세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파로 인해 신라의 경우, 언제부터 일본과 교류가 있었으며 어떤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출토 유물로부터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양상을 논한 것으로는 박천수의 연구가 있는데 아래에 신라의 부분만 추출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⁷⁾. 4세기말, 大阪府 鞍塚고분에서 신라산 馬具가 출토되었다. 5세기 전반기에는 奈良縣 大和6호고분에서 신라산의 鐵鋌이 출토되었고 5세기 말에는 大阪府 譽田御廟山고분에서 신라산 金제 장신구, 奈良縣 新澤千塚 126호고분에서 신라계 工人에 의해 제작된 金동제 갑주가 출토되었다. 6세기 후반기의 사례에 관해서는 福岡縣 오키노시마(沖ノ島) 7·8호유적에서 신라산 馬具와 반지가 출토되었다. 7세기 초에는 福岡縣 船原고

7) 朴天秀, 「古代の朝鮮半島と日本列島」,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263-287쪽.

분에서 신라 마구가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신라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일본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王陵으로 유명한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에서는 일본산 勾玉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4세기대에 이미 신라와 일본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지역은 주로 關西지역과 九州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일본은 신라의 선진적인 물품과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일본에는 아직 문자 사용이 보급화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한자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후반기부터이다. 年紀가 기재된 最古의 목간은 大阪市 難波宮유적에서 출토된 “戊申年”(648)이 기록된 목간인데 64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7세기 전반기의 목간은 현재 100점도 되지 않는다. 목간 사용이 대폭으로 늘기 시작하는 것은 壬申의 亂(672년) 이후이다⁸⁾. 飛鳥유적, 石神유적, 飛鳥京跡 등 7세기 후반기의 유적에서 목간이 1만점 이상 출토되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열도에 있어서 문자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된다.

일본의 문자문화 형성에 있어서는 후술하다시피 백제의 영향이 크나 신라의 영향도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일본에 있어서 “(숫자)를 합해서”를 나타내는 한자는 “并”과 “合”자가 쓰였는데 7세기에는 주로 “并”자가 사용되었다. 필자는 이를 백제의 영향으로 보고 7세기에 사용된 “合”은 신라의 영향으로 추측하였다⁹⁾. 石神유적에서 출토된 아래 7세기의 목간은 “합해서”를 뜻하는 “合”자가 사용되었는데 같은 유구에서 신라 토기도 함께 출토되어 신라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유구의 출토품에 관해서는 新羅使·遣新羅使 등에 의해 반입된 交易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¹⁰⁾.

8) 市大樹, 「日本最古の木簡」, 『飛鳥の木簡—古代史の新たな解明』, 中公新書, 2012.

9) 方國花, 「「并」字の使用法から文字の受容・展開を考える—「並」「合」との比較から—」, 柴原永遠男編, 『正倉院文書の歴史学・国語学的研究—解移牒案を読み解く—』, 和泉書院, 2016.

- 「レ素留宜矢田ア調各長四段四布□□六十一」
- 「荒皮一合六十九布也」 270 · 31 · 5(mm)

이 목간은 길이 四段의 調로 납부된 천(布)의 수량을 적은 것인데 앞면의 “□□”로 되어있는 부분, 즉 “六十一” 위의 2글자는 “三布”로 추정되고 있어, 수량을 계산하면 四布+三布+六十一+荒皮一=六十九布와 같이 된다¹¹⁾.




또한 신라(통일)와 일본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중국과는 다른 사례가 있다¹²⁾. “鑑”자는 중국에서는 금속 중량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으나 신라와 일본에서는 모두 자물쇠, 열쇠를 나타낸다. 신라의 예로는 “습零闌(闌?) 鑑”, “東宮衛鑑”이 새겨진 안압지유적에서 출토된 자물쇠가 있고¹³⁾, 일본의 예로는 앞면에 “東門鑑”, 뒷면에 “東殿門鑑”가 목서되어 있는 키홀더목간을 비롯하여 “鑑”을 자물쇠, 또는 열쇠를 뜻하는 용어로 쓰인 목간이 일본 각지에서 출토되었다¹⁴⁾. 이는 모두 “鑰”자의 俗字로 사용된 것이지만 중국과는 달리 신라와 일본의 문자자료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외에 “伊”자는 일본 목간의 용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尹” 부분의 마지막 획으로 되는 삐침이 첫 번째 획 “一”의 아래에 위치해 있는 “尹” 형태로 쓰였으나 若狹國의 하찰목간에는 “尹”과 같이 마지막 획으

10) 江浦洋, 「海をわたった新羅の土器」, 『ヤマト王権と交流の諸相』, 名著出版, 1994.
 11) 市大樹, 「奈良·石神遺跡」, 『木簡研究』29, 2007. 후에 市大樹, 「石神遺跡北方域の性格と木簡」,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에 수록되었다. 앞부분의 「レ」는 체크했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한다.
 12) 李成市, 「韓国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19, 1997;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2000; 犬飼隆, 「日本語史と東アジアの木簡」, 『木簡による日本語書記史(2011増訂版)』, 笠間書院, 2011, 26쪽, 59-62쪽.
 13) 尹善泰, 「雁鴨池出土『門號木簡』과 新羅東宮의 警備—國立慶州博物館 촬영 赤外線 善本写真을 중심으로—」, 『新羅文物研究』창간호, 2007.
 14) 목간 외에 정창원문서나 다른 문자자료에도 이러한 사례가 보인다. 자세한 것은 方國花, 「古代東アジア各国における「カギ」の漢字表記(上) — 「鑰」·「鑑」—」, 『愛知県立大学大学院國際文化研究科論集』13(日本文化専攻編3), 2012, 69-100쪽 참조.

로 되는 빼침이 첫 번째 획 “一”을 뚫고 위로 나온 형태로 쓰여 있다. 한반도 목간의 경우, 현재로서는 신라의 지방목간인 성산산성목간에만 “伊”자가 보이는데 “尹” 부분은 若狹國의 하찰목간과 같이 “尹” 형태로 쓰여있다.

<표1> “伊”자 형태의 羅日 비교15)

①紀伊國 하찰목간	②若狹國 하찰목간	③성산산성목간28	④성산산성목간49
			

일본 고대목간 중 “伊”자는 기본적으로 표1의 ①과 같은 형태로 쓰여 있다. ①은 平城京에 있는 나라시대의 귀족 長屋王 저택지에서 출토된 8세기초의 목간인데 기재내용으로부터 紀伊國으로부터의 공진물과 함께 납부된 하찰목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紀伊國뿐만 아니라 若狹國을 제외한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하찰목간의 “伊”도 비슷한 형태로 쓰였다. ②는 平城宮 제1차 大極殿院유적에서 출토된 8세기 전반기의 목간인데 이것은 若狹國으로부터의 하찰목간이다. 若狹國의 하찰목간의 경우, “伊”자가 쓰인 목간은 이외에도 3매 있는데 平城宮 造酒司地區에서 출토된 2285호 목간(平城宮2-2283)도 같은 字形으로 쓰여 있다. 나머지 2매의 목간은 글자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반도 목간은 『한국 목간자전』에 “伊”자의 글자 형태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 성산산성목간의 용례가 25예 보이는데 “尹” 부분은 모두가 “尹”과 같은 형태로 되어있다. 그중 자형이 선명한 예를 제시하

15) 각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과 ②는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공개하고 있는 목간 데이터베이스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에 의한 것이다(①木研11-16頁-(97) ②平城宮7-12641). ③과 ④의 출처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 목간자전』, 예맥, 2011(③[城]28-1-1-3, ④[城]49-1-1-6).

면 ③, ④와 같다. 이와 같이 표1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신라의 성산산성목간과 若狹國의 “伊”자는 서풍은 다르나 글자 구조,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

若狹國은 北陸지역에 속하는 고대 율령제 국가의 하나인데 현재 福井縣의 서남부에 해당한다.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한반도와의 직간접적인 교류 속에서 “伊”자의 서사 습관을 포함한 문자문화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고학적인 발굴자료로부터 3세기~5세기 후반 사이의 한반도→北陸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데¹⁶⁾ 필자는 이러한 교류가 그 후에도 계속되어 北陸지역에는 신라의 문자문화가 직접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伊”자의 표1과 같은 형태는 영천 청제비 병진명(536년), 경주 명활성비(551년), 단양 신라 적성비(551년), 대구 무술명 오작비(578년) 등 신라의 碑文에도 보인다. 하지만 백제나 고구려의 문자자료로는 아직 “伊”자의 용례가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우나 신라의 문자자료에 공통으로 확인되고 신라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若狹國에도 같은 글자 형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伊”의 “尹” 부분을 “尹”과 같은 형태로 쓰는 것은 신라의 문자 사용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듯 싶다.

신라의 문자문화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는데 李成市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7세기말로 보고 있다¹⁷⁾. 정현숙은 7세기 후반에 신라의 서사문화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하지만 신라의 문자문화는 이 시기에 일본열도 전 지역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

16) 亀田修一, 「列島各地の渡来系文化・渡来人」,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143-197쪽. 이 서책에서는 朝鮮半島→北陸과 같이 朝鮮半島를 사용하고 있지만 필자는 한반도로 통일하였다. 또한 도성 지역인 近畿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조선반도에서 직접 北陸지역으로의 전파 루트를 제시한 것인 가야계의 馬具, 鐵劍 등이 근거로 되고 있는데 신라도 같은 루트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17) 李成市, 「古代日朝文化交流史」,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2014.

18) 정현숙, 「신라의 서예」,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2018, 424쪽.

각한다. 이는 일부 지역과의 교류, 또는 도래인의 일부 지역에서의 거주 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신라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는 일본 동북지역의 石碑 문화가 그 증거로 된다.

일본은 많은 石碑를 남기고 있는 신라와 달리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대 石碑가 아주 적다. 東野治之는 일본의 石碑가 적은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7세기 후반부터 9세기까지의 石碑가 모두 17점밖에 되지 않으며 自然石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¹⁹⁾. 그중 대부분은 關東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지역의 石碑가 自然石을 사용한 몸돌, 덮개돌로 이루어졌고 이 지역에 신라로부터의 移住民이 많다는 점으로부터 신라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특히 關東지역의 石碑 중, 群馬縣 高崎市에 있는 上野三碑로 불리우는 山上碑(681년)·多胡碑(711년경)·金井澤碑(726년)에 관해서는 그 형태가 신라의 대구 塙作碑·南山新城碑 또는 신라의 진흥왕순수비인 磨雲嶺碑·北漢山碑와 유사하다는 점, 『日本書紀』, 『續日本紀』 등 문헌자료와 考古資料로부터 이 지역에 신라의 도래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라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²¹⁾

이러한 사례로부터 보았을 때 신라의 문자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續日本紀』 天平寶字5년(761) 정월 乙未條에 보이는 美濃·武藏의 소년으로하여금 각 나라에 20인씩 신라어를 배우게한 記事²²⁾가 주목된다. 이 두 지역에 있어서는 신라어를 배우면서 신라 문자문화에 접하며 신라의 문자문화를 습득했을 것으로

19) 東野治之, 「東アジアの石碑文化と古代日本」, 『日本古代金石文の研究』, 岩波書店, 2004.

20) 鐘江宏之, 앞의 논문, 36쪽. 馬場基는 關東지역에 高麗郡, 新羅郡이 설치된 사례로부터 關東의 石碑문화는 高구려·신라의 石碑문화가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馬場基, 앞의 책, 290-291쪽).

21) 前澤和之(오택현 역), 「日本 初期 石碑의 형태에 대한 검토」, 『목간과 문자』18, 2017, 137-160쪽.

22) 青木和夫·稲岡耕二·笹山晴生·白藤禮幸校注, 『新日本古典文学大系 續日本紀』三, 岩波書店, 1992. 원문은 “乙未, 令美濃·武藏二國少年, 每國廿人習新羅語.”

추측된다. 또한 고구려가 멸망된 이후, 신라와 일본은 각자 수십차례에 걸쳐 사절을 파견하면서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였다.²³⁾ 신라의 사절을 맞이한 주요 시설 중 하나가 현재 福岡에 있는 鴻臚館(飛鳥·奈良時代에는 筑紫館이라고 함)인데 7세기 후반기에서 8세기말 사이에는 신라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이 시기에 신라 사신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⁴⁾. 이러한 왕래 속에서 신라촌락문서, 좌과리가만문서 등 신라의 문서가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라의 문자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된 부분에 관해서는 시대성과 지역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IV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Ⅲ. 백제와 일본 문자문화의 공통점

백제와 일본의 교류도 4세기 후반기에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후 오래 지속되면서 백제 멸망 이후에 있어서도 일본 문자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백제와의 제일 이른 시기의 문자자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현재 石上神宮에 남아있는 七支刀이다. 이 칠지도의 연대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369년에 제작되어 372년에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定說로 되고 있다.

5세기의 교류를 제시하는 문자자료로는 『古事記』가 있는데 이에 기재된 應神天皇(5세기 초기에 재위) 시기에 和邇吉師가 『千字文』과 『論語』를 貢進했다는 記事²⁵⁾는 아주 유명하다. 하지만 『千字文』은 중국 남조 즉 梁나라 시기의 周興嗣에 의해 6세기에 편찬된 것이기에 『古事記』의

23) 李成市는 고구려 멸망(668년) 후부터 779년 마지막 新羅使가 파견될 때까지의 약 100년 사이에 양국을 왕래한 사절은 신라가 47회, 일본이 25회라고 지적하고 있다(李成市, 앞의 논문(2014), 18쪽.)

24) 菅波正人, 「鴻臚館の成立と変遷」, 『大宰府の研究』, 高志書院, 2018.

25) 山口佳紀·神野志隆光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中卷, 小學館, 1997, 266-268쪽.

기재 내용과 맞지 않다. 이에 관해 三上喜孝는 7세기에서 8세기 전반기에 일본의 문자문화가 백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의 일본인이 강하게 의식하여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⁶⁾

하지만 5세기에 있어서 백제와 일본에 실제로 많은 교류가 있었음은 각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어 奈良縣 서남부 御所市에 있는 南郷遺跡群에서는 백제나 가야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그중에서도 돌담을 두른 건물유구에서는 백제계의 벽주건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도자층의 거주지로 보여지고 있다.²⁷⁾ 大阪府 柏原市에 있는 高井田山古墳에서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다리미와 아주 닮은 것이 출토되어 피장자는 백제 왕족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⁸⁾ 九州지역 福岡縣에 있는 5세기 후반기의 番塚고분에서는 백제지역과 관련이 있는 두꺼비모양의 금장식구, 다각형 鐵矛, 鳥足文 土器 등이 출토되었다.²⁹⁾ 이와 같이 일본열도에서 백제 유물이 출토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백제 영역에서도 일본 유물이 출토된 사례가 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남아있는 5세기 전반기의 吉頭里雁洞은 倭人の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백제나 중국 유물과 함께 일본에서 만들어진 甲冑도 출토되었다.³⁰⁾

5세기 단계의 문자자료로는 熊本縣 江田船山古墳에서 출토된 江田船山古墳太刀銘과 埼玉縣 稻荷山古墳에서 출토된 稻荷山古墳鐵劍銘이 유명하다. 모두 5세기 후반기의 유물로 보여지고 있으며 새겨진 글씨도 비슷하다. 그중 백제와의 관계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疏”자와 “鹵”자이다. 犬飼隆은 백제의 목간, 즉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297호 목간³¹⁾에 보이는 “疏加鹵”(스가루)를 인명으로 보고 “鹵”자의 字形이 江

26) 三上喜孝, 「習書木簡からみた文字文化受容の問題」, 『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 吉川弘文館, 2013.

27) 千賀久, 「渡来系移住民がもたらした産業技術」,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95-96쪽.

28) 千賀久, 앞의 논문, 120-121쪽.

29) 亀田修一, 앞의 논문, 159쪽.

30) 朴天秀, 앞의 논문, 271-272쪽.

田船山古墳太刀銘과 稻荷山古墳鐵劍銘에 보이는 雄略天皇, 즉 “獲加多支鹵”(와카다케루)를 표기하는 “鹵”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5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이미 고유어를 표기하는 借字용법이 일본에 전해졌다고 한다.³²⁾ 또한 平城京 목간 중 近江國으로부터의 하찰목간에도 인명 “須我流”(스가루)가 보이는데 이를 近江國에 백제로부터 망명한 귀족의 취락이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백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는 6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활발해 진다. 『日本書記』를 보면 6세기 전반기에 유교와 관련되는 五經博士뿐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되는 佛像·經論, 그리고 醫博士, 易博士, 曆博士 등이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파견되었고 이외에도 많은 사신이 파견되었다.³³⁾ 6세기 후반기에는 飛鳥寺 건립에 관하여 백제의 寺工, 露盤博士, 瓦博士, 畫工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日本書記』 崇峻天皇元年 是歲條에 기재되어 있는데³⁴⁾ 이러한 기술자들은 577년에 창건된 왕흥사와 같은 기술자 집단이라는 지적이 있다.³⁵⁾ 이와 같이 많은 백제인이 일본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에도 많은 일본인이 있었다.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된 倭系 百濟 官人의 무덤으로 되는 6세기 전반기의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이 그 증거로 되는데 박천수는 이 시기, 즉 6세기 초를 백제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교류가 시작된 시기라고 한다.³⁶⁾

그 후, 7세기에 들어서서 백제 멸망까지 교류가 진행되었다. 쌍복리유

31)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개정판]한국의 고대목간, 예맥출판사, 2006년 수록 297호 목간. 관독문은 “漢城下部對德疏加鹵”로 되어 있다.

32) 犬飼隆, 「古代日朝における言語表記」,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2014.

33) 6세기 전반기에 있어서의 백제와 일본의 외교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기사는 『日本書記』에 27곳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吉村武彦, 「ヤマト王権と半島・大陸との往来」,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51쪽 참조.

34) 小島憲之·直木孝次郎·西宮一民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二, 小學館, 1996, 518-521쪽.

35) 鈴木靖民, 「王興寺と飛鳥寺 王興寺から飛鳥寺へ」, 鈴木靖民編, 『古代東アジアの仏教と王権-王興寺から飛鳥寺へ』, 勉誠出版, 2010.

36) 朴天秀, 앞의 논문, 276-278쪽.

적에서 출토된 “那尔波連公”이 서사된 목간은 7세기 중반기의 목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那尔波”를 “難波”(나니와)로 보고 “連公”은 일본인의 성씨(카바네)로 해석하며 이는 倭國에서 백제로 보내온 하찰목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³⁷⁾ 이 시기에 『日本書記』 齊明天皇2년(656) 是歲條에는 마침 小山下難波吉士國勝이 백제에서 귀국한 사실이 적혀있어 주목된다.³⁸⁾

일본에서 출토된 목간 중 最古級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難波宮유적에서 출토된 “戊申年”이란 간지년이 적혀있는 목간인데 이는 서력 648년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⁹⁾. 이 “戊”자는 약간 특이한 “𠄎”과 같은 형태로 쓰여 있는데 백제 “좌관대식기”목간의 서두 부분에 쓰인 “戊寅年”(618년)의 “戊”와 글자 형태가 비슷하여 백제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⁴⁰⁾.

7세기 단계의 목간을 보면 문자 사용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백제와의 공통점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部”는 일본 7세기의 목간에는 기본적으로 “ア”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데 이는 백제의 목간, 인각와 등 문자자료에도 많이 보인다⁴¹⁾. 백제의 문자자료의 경우, “部”는 대부분이 “ア”와 같은 형태로 쓰여 있는데 “部” 형태로 쓰여 있는 것은 “前部”銘標石(6세기), 앞서 소개한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297호 목간에만 확인된다. 이에 관해서는 고구려의 平壤城石刻에도 “部”의 같은 간략체(이체자의

37) 平川南, 「百濟の都出土の「連公」木簡」,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53, 2009.

38) 吉村武彦, 앞의 논문, 58-59쪽.

39) 市大樹, 앞의 책, 19-22쪽.

40) 정현숙,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축조의례와 월성해자 목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국목간학회, 2017. 그 후 정현숙,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2018에 수록.

41) “部”의 이러한 간략체 사용에 주목하고 한일의 문자사용에 공통점이 보인다는 지적을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東野治之, 「金石文・木簡」, 『漢字講座五 古代の漢字とことば』, 明治書院, 1988; 東野治之, 「異体字を考える」, 青木和夫編『文献史料を読む・古代』, 朝日新聞社, 1990; 東野治之, 「出雲出土の鉄刀銘」, 『書の古代史』, 岩波書店, 1994; 平川南,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03; 李鎔賢,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2006 등.).

일종)가 보여 고구려에서 기원한 용법이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보여지고 있다⁴²⁾. 다만 신라의 문자자료에는 아직 “部”를 “ア”와 같이 쓴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서술한 “(숫자를)합해서”를 나타내는 한자 “并”은 일본에서는 주로 7세기에서 8세기 초에 사용되는데 이것도 백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⁴³⁾.

이뿐만 아니라 백제 목간과 일본 고대 목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여 지역의 목간과 일본 고대 목간으로부터 보이는 문서행정의 운영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 복암리유적에서 출토된 목간과 일본 고대 목간의 가공법, 글자 형태의 유사성 등과 같이 많은 공통점이 지적되고 있다⁴⁴⁾. 이에 관해서는 백제 멸망 후, 일본으로 건너간 대량의 백제 도래인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만 백제의 영향이 큰 시기에 관해서는 위의 사례로 보았을 때 7세기에서 8세기 초에 집중되어 있다⁴⁵⁾.

IV. 백제계·신라계 도래인의 문자사용과 일본의 지역적·시대적 특성

고대 일본의 문명화, 즉 각 선진적인 기술, 불교, 건축, 문자 사용 등은 한반도와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크다. 실제로 어느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 졌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앞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고학적인 출토 유물로서 증거가 된다. 앞서 II, III에서는 신라와

42) 東野治之, 앞의책(1994); 李鎔賢, 「부여 궁남지 목간」, 앞의 책.

43) 方國花, 앞의 논문.

44) 馬場基, 「木簡の作法と一〇〇年の理由」, 앞의 책, 239-240쪽.

45) 三上喜孝, 앞의 책, 48쪽에서는 백제의 영향이 집중된 시기를 7세기 후반기에서 8세기 전반기라고 하고 있지만 백제의 문자문화의 영향이 8세기 초 이후에 인차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백제가 일본의 문자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일본에 있어서의 신라와 백제의 영향은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시기에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호족과 신라 혹은 백제와의 교류가 그 원인으로 될뿐더러 신라계 도래인, 백제계 도래인이 거주한 지역이 다른 것도 원인의 하나로 된다. 일본 關東지역의 石碑문화, 近江國 지역의 문자문화가 전자는 신라계, 후자는 백제계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일본 각 지역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의 원인으로 된다.

그런데 신라, 백제의 영향이 모두 남아있는 지역 중 하나가 일본 九州 지역이다. 九州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동아시아의 현관으로 불리우는 大宰府, 해외 사절을 맞이하는 筑紫館(헤이안시대에는 鴻臚館)이 설치되었다. 일본과 해외 지역과의 교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九州지역을 예로 신라, 백제의 문자문화가 일본 문자문화의 형성에 각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백제 문자자료의 경우,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으나 2020년 연말에 보고된 백제 사비기(538~660) 왕궁으로 추정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의 북쪽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명문토기에 쓰여 있는 글씨가 일본 九州지역에 남아 있는 牛頸窯蹟群에서 출토된 명문토기와 같은 용법으로 쓰여 크게 주목받고 있다.

부소산성 명문토기의 명문은 모두 14자인데 글자가 뚜렷하고 현재 판독문에 관해서는쟁의가 없는 상황이다. 해석에 관해서는 약간 논쟁이 있는데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⁴⁶⁾.

46) 부소산성 명문토기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2020 신출토 문자자료와 목간』(2021년2월16일,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목간학회 주최)에 수록된 김대영, 2021, 「부소산성 내 명문토기 출토유적과 유물」; 이병호, 2021, 「부소산성 출토 명문토기에 대한 검토」; 방국화, 2021, 「부소산성 명문토기 검토-동아시아 문자자료와의 비교-」 참조. 이병호는 牟尸山을 忠南 禮山郡 德山面으로 비정. 본 해석안은 방국화의 발표자료에 의함(발표자료를 수정·가필한 것이 『목간과 문자』26호에 수록).

부소산성 명문토기 판독문

乙巳年三月十五日牟尸山菊作厖

부소산성 명문토기 해석안

乙巳年(645년) 3월15일에 牟尸山 (=武尸伊郡, 현재의 영광군)의 菊 (제작자 인명)이 만든(作) 항아리 (厖)



〈그림1〉 부소산성 명문토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이 부소산성 명문토기의 글자 중 특히 일본과 관계가 깊은 것인 마지막 글자 “厖”이다. “厖”자에 관해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출토 문자자료에도 사용 예가 다수 확인이 되는데 중국의 경우 한나라 시기에 편찬된 『方言』(揚雄)이라는 자료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⁴⁷⁾ 『方言』(揚雄) 卷五의 “罍”에 관한 서술 내용

에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謂之甌”이라고 적혀 있다.⁴⁸⁾ 이 지역은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 한반도 서북지역을 가리킨다고 한다.⁴⁹⁾ 한반도 서북지역은 삼국시대로 말하자면 고구려, 백제가 이 지역에 속한다. 그럼 “厖”(甌)은 고구려의 문자자료에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백제의 문자자료는 부소산성 명문토기에 보여 『方言』의 기재내용과 부합된다.⁵⁰⁾ 중국 중원 지역에서는 “厖”자가 사용되지 않는 반면, 백제에서는

47) 아래 『方言』에 관한 내용은 방국화, 앞의 발표자료에 의함.

48) 揚雄(郭璞注), 앞의 책.

49) 楊春宇·王媛, 「揚雄《方言》所見的幽燕方言」, 『遼寧師範大學學報』38-6, 2015.

아직 1점이긴 하지만 확실히 “𪛗”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의 “𪛗”의 사용은 백제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𪛗”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같은 이름(미카, 모타히)으로 불리우며 같은 뜻으로 쓰인 “甕”과 대비해 보면 “𪛗”이 더욱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사용 빈도도 높다. 이른 시기의 사례로는 飛鳥池유적, 藤原宮유적, 山田寺 터에서 출토된 7세기 목간, 그리고 지금의 鳥取縣 米子市 陰田마노칸(マノカン)山遺蹟에서 출토된 7세기 후엽의 須惠器 破편, 愛知縣 春日井市 高藏寺2號窯蹟에서 출토된 7세기 후반기의 須惠器 破편에 “𪛗”이 쓰여 있다.

〈표2〉“𪛗”자의 7세기 용례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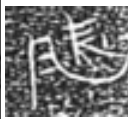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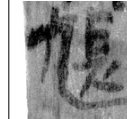
①부소산성	②陰田	③高藏寺	④藤原宮	⑤山田寺	⑥飛鳥池
					

표2에 제시한 자료는 모두 7세기 후반기의 것으로 동시기의 자료로 된다. 그중 ⑥은 飛鳥池遺蹟 北地區에서 출토되었는데 같은 北地區에서는 推古천황 10년(602)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僧侶 “觀勒”의 이름이 보이는 목간도 출토되었다.⁵²⁾ 觀勒은 曆本, 天文·地理書 등을 일본

50) 『方言』의 현재 중국 동북지역의 방언에 관한 내용을 보면 현재에 있어서도 동북방언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方言』에 암탉이 알을 품는 행위를 동북지역에서는 “抱”로 표현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抱”자는 지금도 동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51) 각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②米子市文化財団, 『陰田宮の谷遺跡・陰田マノカン山遺跡』, 2015. ③巽淳一郎, 「古代の焼物調納制に関する研究」, 『瓦衣千年-森郁夫先生還曆記念論文集-』, 森郁夫先生還曆記念論文集刊行會, 1999. ④, ⑤, ⑥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 게재 奈良県『藤原宮』-(56), 飛鳥藤原京1-1455, 飛鳥藤原京1-1319.

52)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 수록 飛鳥藤原京1-955. 해당 목간

에 전한 것으로 유명한 高僧이다. 같은 유적에서는 具注曆이라고 불리우는 당시의 달력을 서사한 목간 부스러기가 출토되었고 그 근처의 石神 유적에서는 最古의 달력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로부터 7세기에 있어서의 달력 사용은 觀勒에 의한 바가 크다고 추정되고 있다.⁵³⁾ 이와 같이 飛鳥池遺蹟에는 실제로 백제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厖”의 사용도 백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고대 목간의 용례를 보면 “厖”자는 17점의 목간에 사용 예가 확인되는데 비해 같은 訓으로 읽히고 같은 뜻으로 쓰인, 즉 同訓異表記로 되는 “甕”은 3점, 그리고 “甕”의 이체자 “瓮”은 6점의 목간에 보인다. 목간과 같은 1차자료로 평가가 되는 8세기의 종이문서, 정창원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厖”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厖”·“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시기적인 차이와 함께 지역적인 차이점도 보인다. 목간이나 정창원문서, 명문토기로 보았을 때 大和國 즉 도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厖”·“甕” 모두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정창원문서에서도 공문서로 보여지는 각 나라의 正稅帳 중 周防國, 和泉監, 駿河國, 伊豆國의 正稅帳에는 “厖”이 사용되었고 西海道에 속하는 豊後國과 薩摩國의 正稅帳에는 “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보았을 때 西海道 諸國에서는 “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지역의 특성으로 보인다.

하지만 筑前國의 문자자료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厖”이 사용되었다. 지금의 福岡縣 大野城市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牛頸窯蹟群에서 출토

에 관한 해설은 奈良文化財研究所, 『飛鳥藤原京木簡—飛鳥池·山田寺木簡』, 2007에 게재된 955호 목간의 해설문에 의함. 해설문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日本書紀』推古天皇10년(602) 10월조에 觀勒이 “曆本及天文·地理書, 并遁甲·方術之書”를 일본에 전했다는 記事가 보인다(『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二, 앞의 책, 538쪽). 하지만 이 목간은 7세기 말의 목간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시기에 觀勒이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망후에 飛鳥寺에서 그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3) 木簡庫 수록 飛鳥藤原京1-958, 木研26-26頁-(55). 목간 부스러기의 해설은 奈良文化財研究所, 앞의 책에 게재된 958호 목간의 해설문에 의함.

된 和銅이란 연호가 새겨진 須惠器 파편에는 “𨮑”이 적혀있는데 이 지역은 筑前國에 속한다.

이 명문토기의 관독문 아래부분에 보이는 “和銅六”은 713년으로 8세기 초기에 해당된다. 牛頸窯蹟群에서는 이 명문토기 외에도 비슷한 내용이 새겨진 토기가 10점 발견되었는데 5점에 “𨮑”이 확인된다.⁵⁴⁾ 그중 글씨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그림2).

筑紫前国奈珂郡
 手東里大神部得身
 □
 □
 □
 并三人
 調大𨮑一僕和銅六年⁵⁵⁾

이 외에 大宰府條坊蹟의 羅城門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𨮑和銅八年”이 새겨진 須惠器 파편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筑前國에서도 和銅연간, 즉 8세기 초기에 있어서는 “𨮑”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출토 문자자료로서 확인된다.

그럼 豊後國과 薩摩國의 正稅帳의 경우 전자의 연대가 737년, 후자는 736년으로서 8세기 중엽에 가까운 시기로 된다. 이 시기의 西海道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𨮑”이 아닌 “甕”을 사용했던 것이다. “𨮑”의 사례와 대비해 보았을 때 和銅연간 즉 8세기 초엽에 있어서는 “𨮑”이 사용되었고 天平연간 즉 8세기 중엽에 가까운 시기에 들어서서부터 “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서 “𨮑”은 백제에서 사용된 글자라고 하였는데 “𨮑”의 사용이 백제로부터, 또는 백제계 도래인으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54) 大野城市教育委員會, 『牛頸ハセムシ窯蹟群Ⅱ』, 1989.

55) 관독문과 그림 출처는 아래와 같다. 大野城市教育委員會, 『大野城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77集 牛頸窯蹟群-總括報告書Ⅰ-』, 2008. 이 보고서에서는 마지막 행의 5번째 글자가 “僕”으로 되어 있으나 응당히 단위 명사 “隻”으로 고쳐야 한다.



<그림2 牛頸窯蹟群 하세무시(ハセムシ)窯蹟 2호 명문토기>

로 본다면 天平연간에 “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甕”이 중국 사료 중 『方言』 이외에는 거의 볼 수 없다고 앞서 서술하였는데 이에 비해 “甕”은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된 글자이다. 신라의 문자자료를 보면 “甕”의 이체자 “瓮”이 사용되었다⁵⁶⁾. 그럼 西海道에 있어서 8세기 초에 사용된 “甕”은 백제의 영향, 8세기 중엽 이후의 “甕”의 사용은 신라 또는 중국 중원지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西海道 특히 筑前國에는 고대 일본의 서쪽의 도성으로 불리우는 大宰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국, 백제, 신라 등 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아시아의 현관으로 자리매김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西海道 지역은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선진적인 문화를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접하고 흡수되는 곳으로 되었다.

56) 월성해자 출토 목간(임001),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183호), 안압지 출토 목간(196호), 안압지 출토 항아리 등에 “瓮”자가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방국화, 앞의 발표자료 참조.

牛頸窯蹟群은 大宰府의 서쪽 약 3km 되는 곳, 大野城跡 서남쪽에 위치하는 九州지역 최대 규모의 가마터인데 8세기 중기에 큰 변화가 생겼다 한다.⁵⁷⁾ 이 가마터는 6세기 중엽부터 9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는데 7세기 후반기부터 이 시기에 설치된 大宰府에 토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8세기 전반기까지 큰 향아리(甗)을 제작하였는데 8세기 중기 이후에는 가마가 소형화되기 시작하면서 큰 향아리는 굽지 않고 소형의 토기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大宰府의 의례나 제사, 蕃客의 접대, 饗宴,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식기류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또한 9세기 전반기에는 생산량이 거의 없다가 9세기 중기부터 큰 향아리를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肥後國으로부터의 도공이 참여했다 한다.

牛頸窯蹟群의 이러한 시기적 변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세기 중기 이후에 큰 향아리(甗)을 제작하지 않는 시기와 豊後國, 薩摩國의 正稅帳에 “甗”이 사용되는 시기가 부합되며 또한 大宰府 政廳의 건물은 7세기 말에서 8세기초 사이에는 백제계 와당이 사용되었으나 8세기 후반기에서 10세기초 사이에는 통일신라의 조와 기술의 전래로 통일신라계 와당이 사용되었다⁵⁸⁾. 그리고 『日本書記』에 의하면 665년에 백제로부터 亡命한 귀족이 大野城 축조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럼 大野城 근변에 있는 牛頸窯蹟群, 7세기 후반기부터 大宰府에 토기를 공급한 牛頸窯蹟群에도 백제계 도래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甗”이 새겨진 須惠器는 백제와 관계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57) 石木秀啓, 「牛頸窯跡群と九州の須惠器生産体制--八世紀以降を中心として」,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34, 2007, 299-353쪽. 이하 牛頸窯跡群에 관한 서술은 이에 의함.

58) 福岡市教育委員会, 『元岡・桑原遺跡群17』, 2008.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신라, 백제의 문자 사용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신라, 백제의 문자자료를 일본의 문자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각 지역에 나타나는 문자문화의 차이를 문자문화의 전파측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西海道 지역을 예로 “厩”의 사용 상황을 同訓異表記로 되는 “甕”과 비교함으로써 “厩”은 백제와의 교류, 또는 백제계 도래인의 영향으로 일본 각지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甕”(瓮) 사용은 신라의 영향으로 보았다. 그리고 若狹國의 하찰목간의 “伊”와 같이 글자 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자문화의 전파측, 즉 신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문자문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원인에 관해서는 “甕”(瓮)의 사용 상황으로부터 미루어 보았을 때 중국 중원지역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추정된다. 향후 출토 문자자료가 증가되면서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등 각국의 문자문화의 특성도 드러날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자문화가 전파된 양상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5월 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보고서 및 자료집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개정판] 한국의 고대목간』, 예맥출판사, 2006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 목간자전』, 예맥, 2011
- 小島憲之·直木孝次郎·西宮一民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二, 小學館, 1996
- 奈良文化財研究所, 『飛鳥藤原京木簡—飛鳥池·山田寺木簡』, 2007
- 青木和夫·稻岡耕二·笹山晴生·白藤禮幸校注, 『新日本古典文学大系 續日本紀』三, 岩波書店, 1992
- 山口佳紀·神野志隆光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中卷, 小學館, 1997
- 揚雄(郭璞注), 『方言』, 中華書局, 2016
- 大野城市教育委員會, 『牛頸ハセムシ窯蹟群Ⅱ』, 1989
- 大野城市教育委員會, 『大野城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77集 牛頸窯蹟群—総括報告書Ⅰ—』, 2008
- 米子市文化財団, 『陰田宮の谷遺跡·陰田マノカン山遺跡』, 2015
- 福岡市教育委員會, 『元岡·桑原遺蹟群17』, 2008

2. 논저류

- 鐘江宏之, 「文字の定着と古代の社会」, 吉村武彦·吉川真司·川尻秋生編『文字とことば』, 岩波書店, 2020
- 亀田修一, 「列島各地の渡来系文化·渡来人」,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 巽淳一郎, 「古代の焼物調納制に関する研究」, 『瓦衣千年-森郁夫先生還暦記念論文集-』, 森郁夫先生還暦記念論文集刊行會, 1999
- 東野治之, 「金石文·木簡」, 『漢字講座五 古代の漢字とことば』, 明治書院, 1988
- 東野治之, 「異体字を考える」, 青木和夫編『文献史料を読む·古代』, 朝日新聞社, 1990
- 東野治之, 「出雲出土の鉄刀銘」, 『書の古代史』, 岩波書店, 1994
- 東野治之, 「東アジアの石碑文化と古代日本」, 『日本古代金石文の研究』, 岩波書店, 2004

- 前澤和之(오택연 역), 「日本 初期 石碑의 형태에 대한 검토」, 『목간과 문자』18, 2017
- 三上喜孝, 「習書木簡からみた文字文化受容の問題」, 『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 吉川弘文館, 2013
- 馬場基, 「書写技術の伝播と日本文字文化の基層」, 『日本古代木簡論』, 吉川弘文館, 2018
- 朴天秀, 「古代の朝鮮半島と日本列島」,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 方國花, 「古代東アジア諸国におけるクラの用字」, 『説林』62, 愛知県立大學国文学会, 2014
- 方國花, 「古代東アジア各国における「カギ」の漢字表記(上) -「鑰」・「鑰」-」, 『愛知県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論集』13(日本文化専攻編3), 2012
- 方國花, 「「并」字の使用法から文字の受容・展開を考える-「並」「合」との比較から-」, 栄原永遠男編, 『正倉院文書の歴史学・国語学的研究-解移牒案を読み解く-』, 和泉書院, 2016
- 笹原宏之, 『方言漢字』, 角川學芸出版, 2013
- 菅波正人, 「鴻臚館の成立と変遷」, 『大宰府の研究』, 高志書院, 2018
- 鈴木靖民, 「王興寺と飛鳥寺 王興寺から飛鳥寺へ」, 鈴木靖民編, 『古代東アジアの仏教と王権-王興寺から飛鳥寺へ』, 勉誠出版, 2010
- 楊春宇・王媛, 「揚雄《方言》所見的幽燕方言」, 『遼寧師範大學學報』38-6, 2015
- 吉村武彦, 「ヤマト王権と半島・大陸との往来」,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 尹善泰, 「雁鳴池出土『門號木簡』과 新羅東宮의 警備-国立慶州博物館 촬영 赤外線 善本写真을 중심으로-」, 『新羅文物研究』창간호, 2007
- 犬飼隆, 「日本語史と東アジアの木簡」, 『木簡による日本語書記史(2011増訂版)』, 笠間書院, 2011
- 犬飼隆, 「古代日朝における言語表記」,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2014
- 李成市, 「韓国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19, 1997
-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2000
- 李成市, 「古代朝鮮の文字文化-見えてきた文字の架け橋-」, 平川南編『古代日本文字

- の来た道』, 大修館書店, 2005
- 李成市, 「古代日朝文化交流史」,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2014
- 李鎔賢, 『韓国木簡基礎研究』, 신서원, 2006
- 石木秀啓, 「牛頸窯跡群と九州の須恵器生産体制--八世紀以降を中心として」,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34, 2007
- 市大樹, 「石神遺跡北方域の性格と木簡」,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 市大樹, 「日本最古の木簡」, 『飛鳥の木簡—古代史の新たな解明』, 中公新書, 2012
- 江浦洋, 「海をわたった新羅の土器」, 『ヤマト王権と交流の諸相』, 名著出版, 1994
- 渡辺晃宏, 「はじめに」, 奈良文化財研究所, 『木簡 古代からの便り』, 岩波書店, 2020
- 정현숙,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축조 의례와 월성해자 목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국목간학회, 2017
- 정현숙, 「신라의 서예」,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2018
- 千賀久, 「渡来系移住民がもたらした産業技術」, 吉村武彦編, 『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2020
- 平川南,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03
- 平川南, 「百濟の都出土の「連公」木簡」,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53, 2009

3. 데이터베이스

나라문화재연구소,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illa and Baekje Character Cultures and Japanese Character Cultures

Fang, Guo-hua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literary culture of Silla and Baekje on the Japanese literary culture based on the excavated text materials. So,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of Silla and Baekje were discussed. The literary culture of Silla, Baekje, and Goguryeo has the same parts, but each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usag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ancient three kingdoms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regarded as the same, but each country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by comparing the text materials of Silla and Baekje with those of Japan, the differences in text culture in each region of Japan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 usage situation of “厶” in the Saikaido(西海道) area with “甕”, it was concluded that “厶” came to be used in various parts of Japa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Baekje people. Also, the use of “甕” (瓮) was considered to be influenced by Silla. Also, there are cases where the shape of the letters differs depending on the region, such as “伊” in the Wooden Documents of Wakasano-guni(若狹國), but this is also presumed to be related to Silla.

keywords :

Silla, Baekje, Character culture, Wooden Documents, Excavated materials